

대형 LNG선부터 중형 MR탱커까지 '원라인' 완성

# HD현대중공업, 美시장 공략 가속

HD현대미포조선과 합병계약  
12월1일 통합 HD현대중출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의 합병이 K-조선의 미국 시장 공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LNG선부터 중형 MR탱커까지 전 선종을 아우르는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서 글로벌 조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지난 23일 개최된 임시주총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 안건을 국민연금을 비롯 각각 참석 주주의 98.54%, 87.56%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이 오는 12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번 합병은 단순한 외형 확장이 아닌 조선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HD현대중공업의 강점인 LNG운반선·VLAC(암모니아 운반선) 등 고부가 대형선에 더해, HD미포의 MR탱커·소형컨테이너선·LPG선 등 중형선 건조역량이 결합됐다. 대형에서 중형까지 이어지는 '원라인 생산체계'가 완성되면

서 조선소 간 생산라인을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생산 효율화뿐 아니라 관리체계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설계·R&D(연구개발)·구매 조직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기자재 조달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박 크기별 기능을 재배치하고 생산라인을 최적화해 납기 단축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닌 조선소 신뢰도와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 역시 2025년 12% 수준에서 오는 2028년 20%를 넘어설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합병을 통해 미국시장 공략에도 적극 뛰어 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톤급과 선종을 한 곳에서 공급할 수 있는 조선소를 선호하는데 HD현대중공업은 초대형 LNG선부터 중형 MR탱커, 자동차운반선(PTC)까지 전 스펙의 선박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향후 미국 해양청

(MARAD)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조선업 보호법(Jones Act)'에 따라 자국 생산 선박만 내항 운항이 가능하지만 LNG선·해양플랜트·방산용 선박 부문에서는 해외 조선소의 참여가 허용된다. 통합을 통해 생산 효율화와 기술 내재화를 마치게 될 경우 본격적인 북미 수주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미포 통합은 울산 중심의 효율화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글로벌 수주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전략적 진화 과정"이라며 "내수 중심 조선에서 대양 중심 조선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증권 한승한 연구원은 "HD현대중공업은 방산 MRO와 해양플랜트, LNG 중심의 고부가 선종에 집중하며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다"며 "조직 슬림화가 아니라 중복 기능 정리와 생산 효율 극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유튜브 인터뷰에서 APEC CEO 서밋과 한국 경제 해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수펙스

## “미·중 갈등의 방향 가늠 보호무역 해법 모색의 장”

최태원 회장, APEC에 대한 견해  
“자유무역 회복되기는 어려워  
한일 경제연대·AI투자 등 해법”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선 한일 경제연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AI) 투자, 해외 인재유입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6일 최태원 회장은 유튜브 '삼프로 TV', '언더스탠딩', '압권' 등 3개 채널 연합 인터뷰에서 오는 28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의 의미와 한국 경제의 성장 전략을 직접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회담은 향후 몇 년간 미·중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700여 명이 참여하는 APEC CEO 서밋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이의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등 글로벌 기업

인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전했다.

이어 “WTO 체제로 자유무역이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성장공식이 이제는 관세 장벽에 막혀 통하지 않아 마이너스 성장까지 우려되는 만큼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공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법으로 ▲한일 경제연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AI 투자 ▲해외 인재유입 및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한일 경제연대에 대해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블록화 시대에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며 “세계 4위 수준의 경제블록을 만들어 대외 여건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보호 중심의 낡은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지향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별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용 기자

## LS전선, 실적 개선에 중장기 전략 구체화

>> 1면 'K-전선, 북미·유럽...'서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규 수주 확대에 힘입어 LS전선의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약 8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형 지중케이블 사업에서 HVDC 비중이 확대되며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주요했다. 대

한전선의 3분기 영업이익도 약 3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적 개선 흐름과 함께 중장기 성장 전략도 구체화되고 있다. LS전선은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2023년 수주한 네덜란드 국영 전력망 운영사 테넌트(Tenn

eT)의 2조원 규모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올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되며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또한 2028년 완공 예정인 미국 버지니아 해저케이블 공장이 가동되면 북미 해저케이블 시장에서도 생산부터 납품까지 독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입찰이 예정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도 선정되면 하반기부터 납품이 시작돼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관희 기자 wkh@

## 태양광 사업부지 사전 공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소 위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105-1, 105-2, 105-4, 105-5 토지 위

2. 발전소 명칭

발전소명	사업주명
이천1호태양광발전소	최선미
이천2호태양광발전소	최선미
이천3호태양광발전소	이중권
이천4호태양광발전소	이중권
이천5호태양광발전소	(유)금성에너지

3. 발전소 면적: 6,955㎡

4. 발전소 내용:

- 설비용량: 89.6kw\*4개소, 498.56kw\*1개소

- 사업개시예정일: 26년 02월

- 사업운영기간: 2026년 02월 ~ 2046년 01월 (예정)

5. 발전사업허가 신청자: 최선미, 이중권, (유)금성에너지

6. 의견서 제출기한: 2025년 10월 27일 ~ 2025년 11월 7일

7. 의견서 제출방법: 전화 063-255-2581, 팩스 063-251-2581

e-mail: ok1300@daum.net